

# 무사(Musa), 카메나(Camena), 세이렌(Seiren):

## 오비디우스의 『변신이야기』 읽기

안재원\*

### 【요약】

이 논문은 로마의 문학이 그리스 문학에 대해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기여를 했던 군소 문법가들을 소개하는 글이다. 로마 문학이 경쟁력을 확보함에 있어서 문법학자들이 기여한 분야는 크게 세 영역이다. 첫째는 그리스 문학의 번역 분야이다. 둘째는 교육 분야이다. 셋째는 교육과 학문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다. 이 글에서는 주로 번역과 교육 분야에 논의를 집중했는데, 오비디우스의 『변신이야기』를 사례 삼아 예증하였다. 로마의 문인들은 그리스의 시인들과는 대조적으로 그 대부분이 학교에서 문법 교육과 문학 훈련을 받았던 학자-시인(*poeta doctus*)들이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오비디우스였기 때문이다.

【주제어】 오비디우스, 문법가들, 모방, 경쟁, 『변신이야기』

---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 연구교수

\*\* 이 글은 2010년 12월에 한국서양고전학회의 동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것이다. 학술대회에서 글의 개선을 위해 많은 조언과 논평을 해 주신 여러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이 글의 심사를 맡아주신 익명의 심사자 선생님들과 이 글의 구성과 관련해서 좋은 제안을 해준 심사자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 I. 들어가는 말<sup>1)</sup>

퀸틸리아누스(Quintilianus, 서기 35년경-96년 추정)의 말대로,<sup>2)</sup> 로마 문학이 독자적으로 개척한 분야는 풍자 장르 이외에는 없다. 서사시, 서정시, 비극, 희극을 망라하는 거의 모든 문학 장르가 그리스의 그것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 문학과 로마 문학의 상관관계를 “연속성과 비연속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려는 시선은 맞다. 그런데, 이 관계를 “모방과 경쟁(*imitatio et aemulatio*)”<sup>3)</sup>의 관점에서 바라보자는 것이 이 글의 요지다. 물론, 라틴어가 풍부해지고 로마 문학이 그리스 문학에 경쟁력을 갖게 된 데에는, 베르길리우스(Vergilius, 기원전 70년-19년), 호라티우스(Horatius, 기원전 65년-8년)와 오비디우스(Ovidius, 기원전 43년-서기 17/18년)와 같은 작가들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그런데, 그들의 배경에는 군소 문법학자들의 숨은 노력도 큰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연구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들 문법학자들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된 적이 없었다. 이런 이유에서 나는 로마의 문학이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던 군소 문법가들을 소개<sup>4)</sup>하고자 한다. 그런데, 로마

1) 오비디우스 『변신이야기』의 원문은 R. J. Tarrant, ed. *Publii Ovidii Nasonis Metamorphoses*(Oxford, 2004)를, 번역은 천병희 역, 『원전으로 읽는 변신이야기』를 참조하였고, 수에토니우스의 『로마의 문법학자와 수사학자들에 대해서』의 원문은 Suetonius Tranquillus, R. Kaster, ed. *De Grammaticis et Rhetoribus*(Oxford, 1995)를 기본 텍스트로 사용하였다.

2) 퀸틸리아누스, 『연설가 교육론』, 제10권 1장, 93절. *Satura quidem tota nostra est.*

3) 이와 관련해서는, Arno Reiff, *interpretatio, imitatio, aemulatio. Begriff und Vorstellung literarischer Abhängigkeit bei den Römern*, Diss., (Köln), Würzburg 1959와 S. Döpp, *Aemulatio: Literarischer Wettstreit mit den Griechen in Zeugnissen des ersten bis fünften Jahrhunderts*(Göttingen, 2001)이 중요한 선행 연구이다.

4) 학문과 제도화의 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오비디우스와 문법학자들 사이에 있는 상관성에 대한 해명과 관련해서는 문법학자 휘기누스를 언급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안재원, “오비디우스의 『변신이야기』의 형성 과정에 대한 탐구: ‘파에톤 이야기’를 중심으로”, 『서양고전학연구』 제42권(2011)을 참조하시오.

문학이 경쟁력을 확보함에 있어서 문법학자들이 기여한 분야는 크게 세 영역이다. 첫째는 그리스 문학의 번역 분야이다. 둘째는 교육 분야이다. 셋째는 교육과 학문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다. 이 글에서는 주로 번역과 교육 분야에 논의를 집중할 생각인데, 오비디우스의 『변신이야기』를 사례 삼아 이야기를 풀고자 한다. 왜냐하면 로마의 문인들은 그리스의 시인들과는 대조적으로 그 대부분이 학교에서 문법 교육과 문학 훈련을 받았던 학자-시인(*poeta doctus*)들이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오비디우스였기 때문이다.<sup>5)</sup>

## II. 안드로니쿠스와 엔니우스

로마 문학이 그리스 문학을 “모방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 로마 문학은 그리스 문학의 번역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라틴어 최초의 문학 작품은 해방 노예 출신인 안드로니쿠스(Andronicus, 기원전 3세기 활약)<sup>6)</sup>가 라틴어로 번역한 『오뒷세이아(*Odysseia*)』(기원전 272년)이다. 로마 문학의 초기 상황이 이렇 수밖에 없었던 사연은 수에토니우스(Suetonius, 서기 70년-122년 이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의 보고에 의해서 잘 해명된다.

그 때, 로마의 문화는 척박했다.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 했기에, 학문에 큰 힘을 쏟을 부을 만한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로마의 문법학자와 수사학자들에 대해서』 제1장).

“그 때”는 제2차 포에니 전쟁이 끝난 직후인 기원전 2세기 초엽이다. 이 시기의 로마는 오랜 전쟁으로 인해 학문과 문화를 가꿀 여력이 없었다. 이를

5) 이와 관련해서는, S. Döpp, *Werke Ovids*, München(dtv Wissenschaft, 1992), 9-28을 참조하시오.

6) G. B. Conte, *Latin Literature: A History*, trans. by J. B. Solodow(Baltimore/London, 1999), 39-42.

해결하기 위해 로마인이 취한 방법은 그리스 텍스트의 번역이었다. 물론, 그리스 고전이 번역을 통해서 로마에 소개되기 이전에도, 『12표법(*Tabula duodecim*)』, 『축제일들(*Fasti*)』과 『연대기(*Annales*)』와 같은 텍스트들이 있었다.<sup>7)</sup> 번역이 시작된 것은 로마의 전통적인 텍스트들이 아이들의 교육에 적합한 것들이 아니라는 점 때문이었다. 이런 이유에서 몇몇 문법교사들은 그리스 고전 작품의 번역을 시도하였다. 그 첫 작품이 『오뒷세이아』이다. 이 번역은 학교 교실에서 오랫동안 읽혔는데, 적어도 호라티우스 시대까지 교재로 사용되었다.<sup>8)</sup>

흥미로운 점은, 안드로니쿠스가 라틴어로 번역한 『오뒷세이아』가 모방 차원에서 진행된 단순 번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이 번역에서부터 소위 “경쟁” 전통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안드로니쿠스의 『오뒷세이아』 번역은 단순한 말의 옮김이 아니라, 이 번역 자체가 당시 로마의 상류층을 지배하고 있었던 친-헬레니즘(*philhellenism*)에 대한 반작용으로 탄생한 작품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 번역은, 그러니까, 당시 로마의 문화가 그리스의 문화에 흡수·동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와 걱정에서 시도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참조할 만한 사례가 마케도니아 인들이다. 그들은 아테네는 물론 세계를 제패했다. 하지만 그들은 문화적으로는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그리스의 문화에 흡수·동화되어 버렸고, 중국에는 자신들의 고유한 언어마저 잃어버렸다. 자신의 문학과 역사를 기록함에 있어서도 그들은 그리스어를 차용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는 마케도니아의 정체성 상실로 이어졌다. 이런 정체성의 상실에 대한 위기가 『오뒷세이아』 번역의 서문에서 드러난다.

한 남자를 나에게, 카메나 여신이여, 노래해주소서, 많은 곳을 떠돌아다녔던 이를.

Virum mihi, Camena, insece versutum (Frag. Od. 1.)

U - U - || U - U || - U U - - x<sup>9)</sup>

7) Conte, *Latin Literature: A History*, 13-27.

8) 『서간문(*Epistulae*)』 제2권 1장 134행 이하를 참조하십시오.

9) 운율에 대해서는, Conte, *Latin Literature: A History*, 19-22를 참조하십시오.

주목해야 할 점은, 안드로니쿠스가 그리스의 무사(Musa) 여신이 아닌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노래를 관장하는 카메나 여신에게 노래를 간청하고 있고, 『오뒷세이아』 번역을 함에 있어서, 그리스의 육각음보가 아닌 사투르니아 음보<sup>10)</sup>를 사용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사투르니아 음보는 나이비우스(Naevius, 기원전 285/60년-190년)<sup>11)</sup>가 포에니 전쟁에 대한 서사시를 지을 때에 사용했던 운율이다. 이와 관련해서 나이비우스는 로마인들이 라틴어로 말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이유로 “카메나 여신이 자신을 위해 애도할 것”<sup>12)</sup>이라는 내용을 자신의 묘비에 새기고자 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을 고려할 때, 안드로니쿠스의 『오뒷세이아』 번역은 단순 율감이 아니라, 로마 문화이 소위 그리스 문학을 수용할 때부터 작동했던 창조적 경쟁의 한 사례라 하겠다. 물론, 엔니우스(Ennius, 기원전 239년-기원전 169년)와 같은 작가는 로마 작가들과 문법교사들의 이와 같은 형식에 있어서의 “창조적 경쟁”을 무시했지만 말이다. 엔니우스는 전통적인 사투르니아 음보 대신에 그리스의 육각 음보(hexametrum)를 수용해서 서사시를 노래하려고 시도한다. 이런 시도는 베르길리우스와 같은 후대 시인들이 라틴어로 서사시를 지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sup>13)</sup>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엔니우스가 형식에 있어서는 그리스의 육각음보를 차용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그의 서사시가

10) 이 음보의 기본 구성은 다음과 같다.

$$\text{Ⓢ} - \text{Ⓢ} \text{ } \text{||} \text{Ⓢ} - \text{Ⓢ} \text{ } \text{||} \left\{ \begin{array}{l} - \text{ } \text{ } \text{||} \text{Ⓢ} - \text{ } \text{ } \\ \text{Ⓢ} - \text{ } \text{ } - \text{ } \end{array} \right.$$

11) 이에 대해서는, Conte, *Latin Literature: A History*, 43-48를 참조하십시오.

12) 이 말은 겔리우스, 『아티카의 밤들』 제1권 24장 2절에 단편으로 전해지는데, 원문은 다음과 같다. Epigramma Naevi plenum superbiae Campanae, quod testimonium iustum esse potuisset, nisi ab ipso dictum esset: immortales mortales si foret fas flere, // flerent divae Camenae Naevium poetam. // itaque postquam est Orcho traditus thesauro, // oblitus sunt Romae loquier lingua Latina.

13) 이에 대해서는, Conte, *Latin Literature: A History*, 75-84를 참조하십시오.

가장 로마적이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나중에 보다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단적으로, 로마가 트로이아의 혈통이라는 점을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텍스트가 엔니우스의 『연대기』라는 점에서 그렇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에 결론적으로, 카메나를 숭배하는 로마의 문학은 그 시작부터 무사 여신을 모시는 그리스 문학에 대해 경쟁 관계에 있었음이 분명하다 하겠다.

### Ⅲ. 마르쿠스 폼필리우스 안드로니쿠스

폼필리우스(Marcus Pomponius Andronicus, 기원전 1세기 활약)는 에피쿠로스 철학을 추종했던 문법 교사였다.<sup>14)</sup> 전거는 아래와 같다.

마르쿠스 폼필리우스 안드로니쿠스는 시리아 출신으로 에피쿠로스 일파를 추종했다. 해서 문법을 전수하기에는 매우 게으른 사람이었고 학교 수업을 책임지기에는 부적합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로마에서 안토니우스 그니포는 물론 급수가 더 낮은 사람들보다도 아래에 자신이 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쿠마이로 이사해서 한적함에서 [여유를 즐기며] 살았고, 그곳에서 많은 저술을 했다. 그러나 실은 빈곤과 궁핍함에 시달렸다고 한다. 안드로니쿠스는 견디다 못해 소책자이지만 자신의 대표작이면서 그의 [비평자로서의] 철저함이 돋보이는 엔니우스의 『연대기』에 대한 비평서를 16,000 냥(세스테르티우스)에 익명의 어떤 이에게 팔아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렇게 팔린] 책들은 [책장 구석에

14) 에피쿠로스가 파이데이아 전통의 교육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이유에서 에피쿠로스 철학과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실정이다. 하지만 후대 특히 로마 공화정 말기에 활약한 필로데모스는 헬레니즘 시대 교육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수사학에 대한 저술을 남긴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에 에피쿠로스의 노선을 추종한 철학자들이 파이데이아 전통의 교육 방식을 철저하게 부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교육 현장의 수요와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로는 C. Chandler, "Introduction" (1. The Epicureans and paideia), in *Philodemus On Rhetoric Book 1 and 2* (New York: Routledge, 2005)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이 글은 아직 개괄적인 조망에 머무는 접근으로, 이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분석이 요청된다.

처박히어] 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르빌리우스는 자신이 다시 사들여 작가(아마도 안드로니쿠스)의 이름으로 출간되도록 힘썼노라고 말한다(『로마의 문법학자와 수사학자들에 대하여』 제8장).

폼필리우스는 시리아 출신이었다. 그가 시리아 출신이라는 점이 중요한 이유는, 이곳이 에피쿠로스 철학이 꽃피웠던 지역이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점은 폼필리우스가 엔니우스의 『연대기』를 비판하는 주해서를 저술했다는 수에토니우스의 보고이다. 이와 관련해서, 엔니우스의 『연대기』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잠시 소개하면, 이 작품은 베르길리우스가 로마의 건국서사시인 『아이네이스』를 작성할 때 밑바탕으로 사용한 텍스트이다. 그러니까, 로마가 트로이아의 후손이고 아이네아스가 로마의 건국 시조로 등장할 수 있도록, 결론적으로 로마사를 트로이아에서부터 기술할 수 있도록 한 저술이 이 텍스트이다. 그런데, 엔니우스에 대한 폼필리우스의 비판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폼필리우스의 주해서에 대한 경매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해서 수에토니우스는 익명의 어떤 이가 구매해서 책장 속에 처박아 두었다고 전한다. 이 보고의 이면 진실은 폼필리우스의 비판을 못마땅하게 여긴 로마의 어떤 한 지도층 인사가 책을 경매로 구입해서 유통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는 일종의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치적 사건<sup>15)</sup>인 셈인데, 흥미로운 점은 이에 대한 오르빌리우스의 태도이다. 그가 폼필리우스의 원고를 구입해서 출판케 해 준 이유 때문에 그러한데, 이 대목에서 학문적으로 안드로니쿠스와 같은 입장을 취했기에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전승 기록이 없어 자신 있게 말할 근거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분명한 것은 그가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이다.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는 이런 노력은,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일련의 지적 전통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런 지적 전통 가운데에 하나가 이를 테면 에피쿠로스 철학이었다.

15) 소위 사상과 학문에 대한 “통제와 검열”은 공화정 말기보다는 제정 초기에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를 잘 살필 수 있는 작품이 타키쿠스, 『연설가에 대한 대화』이다.

잠시, 기원전 1세기 로마의 지식인들이 참여했던 담론 세계를 살펴보자. 키케로의 저술을 통해서 스토아 철학, 에피쿠로스 철학, 페리파토스 철학과 아카데미아 철학이 당시 학교 교육 시장을 놓고서 첨예한 대결을 벌였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로마의 지식인 세계를 달구었던 핵심 논쟁은 철학 담론이 아니라 역사 논쟁이다. 예컨대, 시인 베르길리우스와 역사가 리비우스 사이에 있는 갈등과 긴장, 역사가 살루스티우스와 리비우스 사이에 있는 차이점들의 핵심은 허구와 진실, 신화와 역사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기 때문이다.<sup>16)</sup> 이 역사 논쟁의 방아쇠를 당긴 사람이 폼필리우스일 것이다. 추측하건대, 그는 신화와 역사의 구분, 역사를 정치적으로 이데올로기화하려는 엔니우스의 시도에 대한 불만을 품었을 것이고, 이를 문제 삼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컨대, 기원전 1세기 말에 로마의 지식인 사이에는 “아이네아스”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아이네아스가 과연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인가 아니면 허구적으로 빚어낸 인물인지에 대한 공방<sup>17)</sup>이 이 논쟁의 “핫이슈”였다. 단적으로, 디오니소스 할리카르나소스를 증인으로 불러오자.

내(아마도, 디오니소스 할리카르나소스) 생각에는 잠시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다음 이야기를 소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아이네아스가 심지어 트로이아인들과 함께 이탈리아에 온 적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역사가들이 몇몇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역사가들은 이탈리아에 온 아이네아스는 앙키세스와 아프로디테의 아들이 아니라 다른 아이네아스일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아직도 아이네아스가 아니라 그의 아들 아스카니우스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다른 이들은

16)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선행 연구는, M. Toher, “Augustus and the Evolution of Roman Historiography”, in K. A. Raafaub and M. Toher, eds. *Between Republic and Empire*(Berkeley: 1990), 124-139와 B. Meißner, *Historiker zwischen Polis und Königshof. Studien zur Stellung der Geschichtsschreiber in der griechischen Gesellschaft in spätclassischer und frühhellenistischer Zeit*, *Hypomnemata* 99(Göttingen, 1992)를 들 수 있다.

17) 이와 관련해서는, K. A. Raafaub, “The Conflict of the Orders in Archaic Rome: A comprehensive and Comparative Approach”, in K. A. Raafaub, ed. *Social Struggle in Archaic Rome*(California, 1986), 1-51과 한국의 선행 연구로는 허승일, 「제1장 初期 로마: 歷史인가, 神話 또는 詩인가?」, 『로마사입문』(서울대학교 출판부, 1993), 1-8을 참조하시오.



다른 인물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주장하기도 한다. 물론 아프로디테의 아들인 아이네아스가 동료들을 데리고 이탈리아에 왔고, 나라를 세우고 나서, 다시 트로이아로 돌아가서, 그 곳을 다스렸고, 그 곳에서 생을 마감했으며, 왕국을 아들 아스카니우스에게 물려주었고, 그의 후손들이 이 왕국을 오랫동안 다스렸다고 말이다. 내 추정이 맞는다면, 이 모든 이야기들은 호메로스의 이야기를 잘못 이해한 탓일 것이다(*De Antiquitatibus Romanorum* 1.53.4).

디오니소스 할리카르네타소스가 어떤 입장을 취하든 간에, 인용은 아이네아스 문제는 로마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매우 중요한 논쟁 주제였음을 보여준다. 주지하다시피, 이 역사 논쟁의 중심에 서 있던 시인이 베르길리우스다. 그렇다면, 로마에서 ‘아이네아스’에 대한 논쟁이 격렬하게 불붙은 이유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는 아마도 로마의 정치 체제의 변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베르길리우스는 『아이네이스』에서 아우구스투스가 아이네아스의 후손이라고 노래한다. 이를 통해서 아우구스투스의 지배와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실은 아이네아스를 일리아(Ilia)의 아버지이자 로마의 건국자인 로물루스의 할아버지로 만든 이는 바로 엔니우스이다.<sup>18)</sup> 물론 당시 로마의 독자들도 호메로스의 아이네아스와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아스가 얼마나 다른지를 아주 잘 알고 있었다. 이런 역사 논쟁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전거로 역사가 리비우스를 증인으로 불러오자. 그는 『로마건국사(*Ab Urbe Condita*)』 서문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

18) Ilia Aeneae filia sororem adloquitur / Excita cum tremulis anus attulit artubus lumen, / Talia commemorat lacrimans, exterrita somno: / ‘Eurudica prognata pater quam noster amavit, / Vires vitaeque corpus meum nunc deserit omne.(35) / Nam me visus homo pulcher per amoena salicta./Et ripas raptare locosque novos: ita sola / Postilla germana soror, errare videbar / Tardaue vestigare et quaerere te, neque posse / Corde capessere: semita nulla pedem stabilibat.(40) / Exin compellare pater me voce videtur / His verbis: “o gnata, tibi sunt ante gerendae / Aerumnae, post ex fluvio fortuna resistet.” / Haec ecfatus pater, germana, repente recessit / Nec sese dedit in conspectum corde cupitus,(45) / Quamquam multa manus ad caeli caerula templa / Tendebam lacrumans et blanda voce vocabam. / Vix aegro cum corde meo me somnus reliquit.’ / Romulo auspicia data/ Curantes magna cum cura cumcupientes(80) / Regni dant operam simul auspicio augurioque.

로마가 건국하기 이전의 역사와 로마가 건국하기까지의 역사에 대해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사실(史實) 중심의 기록보다는 시인들의 입을 통해서 지어진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진 것들에 대해서는 찬성할 생각도 없고 반박할 생각도 전혀 없다. 국가의 탄생을 더욱 권위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인간들이 벌이는 사건의 배경에 신들을 위치시키는 일은 상고사에 주어진 특권이기도 하다. 만약 어느 나라 사람들이든, 자신들의 기원을 신성화하고 그들의 시조를 신격화(神格化)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허용되는 권리라면, 저 전쟁의 영광은 로마 인민의 차지가 되어야 함이 당연하다.

요컨대 “아이네아스” 문제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점은 리비우스가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그는 아이네아스와 아스카니우스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한다.

누가 이렇게 오래전의 일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을까? 나 [리비우스]는 결코 따지지 않을 것이다. 이 아들이 아스카니우스인지, 아니면 이 아들보다는 더 나이가 많고, 일리움 도성이 아직 함락되기 전에 크레우사의 소생으로 아버지를 따라 망명길을 나섰던 자가 아스카니우스인지를 말이다. 후자의 경우, 이 자를 율리우스 가문 사람들은 “율루스”라 불렀다. 이렇게 부른 사람들이 바로 율리우스 가문의 사람들인 셈이다. 어찌되었든, 아스카니우스가 어디에서 태어났든지 어머니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가 아이네아스의 아들인 것만큼은 확실하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리비우스의 서술 전략이 베르길리우스의 그것보다는 더 세련된 것으로 보인다. 어찌되었든, 베르길리우스는 『아이네이스』를 통해서 카이사르의 가문을 신격화하려고 시도했지만, 리비우스는 이런 방식의 작업이 가지고 있는 부담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역사 논쟁에 대해서 리비우스도 잘 알고 있었고, 물론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스카니우스가 아이네아스의 아들이라는 점만큼은 역사적 사실로 슬그머니 기술하고 있다. 또한 역사 논쟁이 기원전 1세기 로마 지성인들의 최대 담론이었다는 점은 키케로의 저술에서도 확인된다. 예컨대, 앞의 인용에서 읽었듯이, 리비우스의 역사관이 로마 중심의

관점에서 역사를 서술하는 전통에서 있는 것이라면, 키케로는 “진실주의”<sup>19)</sup>노선을 중시한다. 전거는 아래와 같다.

누가 모르겠는가? 어떤 것이든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이 역사의 제1법칙이라는 점을 말하네. 이어서 역사의 제2법칙은 진실을 말함에 있어서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제3법칙은 역사를 서술함에 있어서 어떤 당파의 이익에 따라 편파적이어서도, 어떤 적개심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네(『연설가에 대하여』 제 2권 62장)<sup>20)</sup>.

어찌되었든, 흥미로운 점은 오비디우스도 이 역사 논쟁<sup>21)</sup>에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변신이야기』가 제1권의 카이사르 살해자들에 대한 언급과 아우구스투스의 찬양(제1권 200-207행)으로부터 시작해서 제15권에서 카이사르의 신격화(745-870행)로 마무리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전체 이야기가 맺는말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로마의 힘에 정복된 나라들이 펼쳐져 있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도 나는 인민의 입에서 읽힐 것이며, 시인의 예언이 진실을 담고 있는 것이라면, 나의 명성은 영원히 살리라(제15권 877-879행).

인용에서 볼 수 있듯이, 오비디우스에게서도 로마 전통을 중시하는 면모가 발견된다. 요컨대, 이탈리아 전통과 로마 역사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강조가 실은 이탈리아 시가를 관장했던 카메나 여신을 숭배하는 전통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런 면에서 보면, 오비디우스도 카메나 전통을 추종했던

19) 이와 관련해서는, A. D. Leeman, H. Pinstor, and H. L. W. Nelson, *De Oratore Libri III*(Heidelberg, 1985), 249-252를 참조하시오.

20) *Nam quis nescit primam esse historiae legem, ne quid falsi dicere audeat? Deinde ne quid veri non audeat? Ne quae suspicio gratiae sit in scribendo? Ne quae simultatis?*

21) 오비디우스와 아우구스투스의 관계에 대해서는, S. G. Nugent, “*Tristia 2: Ovid and Augustus*”, in K. A. Raafaub and M. Toher, eds. *Between Republic and Empire*(Berkeley, 1990), 239-257을 참조하시오.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 하겠다.

#### IV. 퀸투스 카이킬리우스 에피로타와 발레리우스 카토

오비디우스의 자유분방한 시풍의 기원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겠다. 이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문법가는 에피로타(Quintus Caecilius Epirota, 기원전 75년-15년)다. 그에 대해 수에토니우스는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퀸투스 카이킬리우스 에피로타는 투스쿨룸 출신이다. 그는 로마의 기사였던 아티쿠스의 해방 노예였다. 키케로가 아티쿠스에게 보내는 서간문은 다음과 같이 [에피로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마르쿠스 아그립파와 혼인했던 주인 아티쿠스의 딸을 가르쳤는데, 그녀에게 흑심을 품었다가 발각되어 추방되어, 코르넬리우스 갈루스를 찾아가 그의 식객(食客)이 되었고 갈루스와 절친한 우정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았다고 한다. 갈루스가 에피로타를 받아들인 이 사건을 놓고 아우구스투스는 가장 후안무치한 범죄 중의 하나라 일컬으며 갈루스 자신에게 직접 [대놓고] 꾸짖었다고 한다. 갈루스가 [이집트에서의] 추방 생활을 마치고 생을 마감하자, [에피로타는] 로마에서 [문법] 학교를 열었다. 그러나 청년들만을 위한 소규모 [고급] 강좌를 개설하고 아직 어린 소년들은 사절했는데, 예외적으로 에피로타가 신세를 진 부모의 자식들에 한해서만 수강을 허용하였다. 그는 라틴어 [문법] 강의 전통에서 주제 중심의 강의를 개설한 최초의 인물이었다고, 베르길리우스와 다른 신세대 시인들의 작품을 대상으로 강의 주제로 삼은 최초의 교사였는데, 이에 대해 도미티우스 마르수스의 시행(詩行)은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에피로타, 어리고 여린 시인들의 유모(乳母)

(『로마의 문법학자들과 수사학자들에 대하여』, 제16장).

에피로타는 아티쿠스(Atticus, 기원전 112/109년-기원전 35/32년)의 해방 노예 출신이었고 갈루스(Gallus, 기원전 69년경-기원전26년)와 절친한 관계를 맺은 문법학자였다. 갈루스는 처음에는 아우구스투스(Augustus, 기원전 63년-서기 14년)의 총애를 받았으나 나중에는 그의 총애를 잃고 자살했던 장군이었다.

또한 그는 아주 뛰어난 시인이었다. 갈루스의 시풍은 라틴 연애시 전통의 기초를 닦은 프로페르티우스(Propertius, 기원전 47년-서기 2년)와 라틴 연애시의 정점에서 있다고 할 수 있는 오비디우스의 시풍에 큰 영향을 행사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sup>22)</sup>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에피로타와 갈루스와의 관계이다. 갈루스의 연애시 시풍에 에피로타가 중요한 기여를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에피로타의 애정 행각에 대한 수에토니우스의 비아냥이 재미있다. 이런 비아냥은 에피로타의 자유분방한 기질과 그가 선호했던 문학 기풍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로마 문학의 특징은 교훈과 유익함(*utile*)을 중시하는 경향과 즐거움(*chilce*)과 경쾌함을 선호하는 두 갈래 경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 경건하고 교훈적인 시풍을 표방했던 베르길리우스와 호라티우스가 전자에 속한다면, 프로페르티우스와 오디비우스는 후자에 속하는데, 갈루스의 시풍은 오비디우스의 시풍에 큰 영향을 끼쳤고, 그렇다면, 갈루스를 위해서 문법과 문학에 대해서 조언과 상담 교사 역할을 한 에피로타가 즐거움과 경쾌함을 중시하는 서정시 시풍과 연애시의 전통을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하겠다. 결론적으로, 오비디우스의 자유분방하고 장난기 넘치는 시풍은 아마도 에피로타의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 적어도 수에토니우스의 진술에 입각한 추정이 가능하다면 말이다. 어찌되었든, 수에토니우스의 보고에 따르면, 에피로타의 강의방식과 교재선택이 자유롭고 전통적인 방식을 벗어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요컨대, 문법 중심 강의에서 주제 중심 방식으로의 전환이 그것이고, 이제 베르길리우스와 같은 당대의 고전을 라틴 강의 교재로 사용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그것은 엔니우스와 같은 옛날 작가의 작품이 아니라, 호메로스와 같은 그리스 작가가 아닌 당대 라틴 작품을 교육 현장에 도입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수에토니우스의 보고는 정신적으로 정복당한 로마가 이제 그리스의 정신으로부터의 모방 단계를 지나 경쟁하는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과정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에피로타에 대한 기록은 역사적으로 의미 있다 하겠다.

22) 이와 관련해서는, Suetonius Tranquillus, R. Kaster, ed. *De Grammaticis et Rhetoribus*(Oxford, 1995), 184-185를 참조하시오.

그런데, 오비디우스의 자유로운 시풍과 관련해서 언급해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가 세이렌 전통이다. 세이렌은 서양 고대의 시가(詩歌) 전통 가운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sup>23)</sup> 특히 세이렌이 로마의 연애시 전통의 수립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밝혀진 사실들은 별로 많지 않다. 또한 이에 대한 논의도 활발한 편은 아니다. 그런데, 세이렌이 로마의 연애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증인이 바로 발레리우스 카토(Valerius Cato, 기원전95년-25년)라는 문법학자였다. 수에토니우스의 보고다.

문법 선생 카토는 라틴어로 [노래하는] 세이렌으로 시인을 취재(取材)하고 시인으로 다듬을 줄 알았던 유일한 [선생]이었다. [카토]는 문법서적(주석서)들 외에 시작(詩作) 활동도 했다. 작품들 중에서 특히 『뤼디아』와 『디아나』가 사랑 받았다. 『뤼디아』에 대해서 티키다는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뤼디아』는 지식인들의 최고 총서(籠書)였다. 『디아나』에 대해서는 킨나가 다음과 같이 염원했다. 시대와 시대를 거쳐 우리의 자랑 카토의 『딕튀나(그물에 걸린 요정)』가 지속하기를. [카토는] 살기는 아주 오래 살았으나, 극도의 가난과 궁핍함에 내몰려서 투스쿨룸의 저택을 빗쟁이들에게 넘겨주고 빛도 들지 않은 돌로 지은 움집에서 처량한 말년을 보내었다. 이에 대해서는 비바쿨루스가 산증인이다 (『로마의 문법학자와 수사학자들』에 대해서』 제11장).

인용은, 문법학자들이 로마 사회에 어떤 식의 영향을 주었고, 이에 따라

23) 세이렌은 『오뒷세이아』 제9권에서 처음 등장한다. 이런 이유에서 세이렌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예컨대, 플라톤의 『국가』 제10권의 “에르” 신화에서도 세이렌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리스 문학사에서 세이렌 문제에 대한 대표적인 선행 연구는 L. E. Doherty, “Siren Songs: gender, audiences, and narrators in the *Odyssey*”, in B. Cohen, ed. *The Distaff Side: representing the female in Homer's Odyssey*(1995), 81-92; J. Leclercq, *La Sirène dans la pensée et dans l'art chrétiens (2e-12e siècles): antécédents culturels et réalités nouvelles* (2 vols.)(Université libre de Bruxelles, 1987). 여기에 서구 문학 전통에서 발견되는 세이렌 현상 일반에 대한 연구인 Siegfried de Rachewiltz의 *De Sirembus, An Inquiry into Sirens from Homer to Shakespeare*(1987) 등이 있다.

어떤 새로운 변화가 생겨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예컨대, 카토가 로마 사회에 기여한 핵심 사항 가운데 하나가 “새로운 시 운동(poetae novi)”이었다.<sup>24)</sup> 이 운동의 특징은, 진지하고 무거운 주제 의식을 가지고 장중한 운율과 거대한 규모의 서사시 풍의 노래보다는 일상의 느낌과 감정을 가볍게 표현하는 리듬의 노래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이 “새로운 시 운동”의 핵심 구성원에 속하는 사람이 킨나(Cinna, 기원전 1세기 활약), 비바쿨루스(Bibaculus, 기원전 1세기 활약), 카토(Cato, 기원전 1세기 활약), 카툴루스(Catullus, 기원전 85년-55년)와 같은 시인들이었다. 그런데, 수에토니우스에 따르면, 카토 자신이 로마의 “세이렌”이었다고 한다. 『뤼디아(Lydia)』와 『디아나(Diana)』 그리고 『딕튀나(Dictyna)』와 같은 작품들이 새로운 시 운동을 위해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한 작품들이었다.

시풍과 주제의 관점에서 볼 때에 오비디우스도 자유분방한 시풍과 연애담을 즐긴다는 점에서 세이렌 전통을 따른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세이렌 여신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 『변신이야기』 곳곳에서 그리고 그의 다른 연애시에서 포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비디우스의 시풍과 이야기 묶는 방식과 세이렌과의 연관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체계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다. 물론, 『변신이야기』에서도 세이렌이 언급된다. 하지만, ‘세이렌 이야기’가 독립된 하나의 이야기 꼭지로 다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페르세포네의 납치이야기를 구성하는 하나의 삽화(제5권 552행-563행)로 소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비디우스의 서술 문제와 세이렌의 상관성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요청된다. 이와 관련해서 세이렌은 페트로니우스의 『사튀리콘』 제1권 27장 5절, 스타티우스 『숲』 제2권 2장 116행 이하, 유베날리스 『풍자』 제1권 4장 19행에서 언급된다. 물론, 라틴 문학사에서 그리스 전통의 무사와 로마 전통의 카메나 전통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분명하게 밝혀져 있다. 하지만 세이렌 전통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미진한 편이다. 아직 세이렌

24) 이와 관련된 주요 선행 연구에는 T. P. Wiseman, *Cinna the Poet and Other Essays*(Leicester, 1974), 44-58과 R. O. A. M. Lyne, “The Neoteric Poets”, *Classical Quarterly* 28(1978), 168-87이 있고, “새로운 시 운동”에 참여했던 시인들의 단편들은 W. Morel, *Fragmenta poetarum epicorum et lyricorum praeter Ennium et Lucilium*(Leipzig: 1927, 1963, 1982 (K. Büchener))에 수집되어 있다.

전통에 속하는 노래들의 운율에 대해서도 제대로 조사된 바가 없다. 특히 로마의 세이렌 전통과 관련해서는 풍자의 장르가 매우 중요한데, 풍자는 그리스의 무사 전통의 음율 형식에다 세이렌 방식의 “내러티브”가 결합된 장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어찌되었든 연구 사정이 이러함에도 오비디우스의 이야기 구성 방식의 해명과 관련해서 나는 『변신이야기』의 전체 구성을 주목하고자 한다. 『변신이야기』는 약 250여 개의 이야기 꼭지로 구성된 텍스트이다. 그런데, 『변신 이야기』의 이런 이야기 구성이 우연적인 것은 아니고, 어쩌면 세이렌 여신이 이야기를 엮는 방식에 따라 짜여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그러니까, 『변신이야기』의 텍스트 구성은 시간적 순서의 관점에서 보면, 전체 이야기를 관통하는 주제 의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야기는 일종의 그물로 구성되어 있다. 일종의 네트워크 구성이라 하겠다. 그래서 개별 꼭지는 하나의 모듈 혹은 허브 기능을 한다. 그런데 어떤 개별 꼭지를 읽을 때면, 다른 나머지 꼭지들은 작동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개별 꼭지는 다른 꼭지들과 일종의 시냅스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어떤 꼭지에 불이 들어오면 다른 꼭지들은 불이 들어오지 않지만, 그 불의 배경에는 전체 다른 꼭지들이 배경에서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마치 『변신이야기』 제2권에 소개되는 아르고스의 눈이 하나만 켜져 있고 나머지 99개의 눈들은 잠들어 있지만, 그 나머지가 죽은 눈들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 꼭지와 꼭지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된 그물망 구조를 가진 작품이 『변신이야기』다. 이런 이유에서 『변신이야기』는 카멜레온이다. 개별 꼭지에 따라 이야기의 그물이 총체적(holistic)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변신이야기』가 “총체적”임을 보여주는 것은 오비디우스의 시선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지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런데, 공간적으로 그가 위치한 곳은 흥미롭게도 소문(*fama*)의 여신이 머무는 궁전이다. 이곳은 그가 『변신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곳이기도 하다.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바라보는 더 높은 시선과 더 깊은 통찰이 필요”하고, 이런 이유에서 오비디우스는 감히 인간적인 시선에서 신들의 시선으로 관점을



이동하며, 이런 신적인 시선을 통해서 시인은 우주의 시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장소로 그가 선택한 곳은, 바다-대지-대기가 만나는 장소, 현재-과거-미래가 연결된 지점, 모든 이야기들의 모이고 흩어지고, 묶고 조절하는, 그래서 살아가는 이야기와 사랑이 만들어 낸 변화와 역사를 기록하고 전해주는 관문(portal)인 소문의 궁전이다.

세상의 한 가운데, 바다와 대지와 하늘의 중간에,  
우주의 삼계(三界)가 서로 만나는 곳이 있다.  
이곳에서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무엇이든 다 보이고,  
열린 귀에는 무슨 소리든 다 들린다.  
이곳에 소문의 여신, 파마가 살고 있다.  
그녀는 맨 꼭대기에 거처를 마련하고, 그 곳에는  
수많은 입구와 천 개의 통로를 내었고, 문턱에는  
문을 달지는 않았으며, 밤낮으로 열려있었다(『변신이야기』 제12권 39-46행).

그런데 시간적인 관점에서, 그가 서 있는 위치를 추적하면 다음과 같다.  
『변신이야기』의 초사이다.

변신을 통해서 새 몸을 바뀐 형상들을 이야기하도록  
마음이 서두르는구나! 신들이시여, (저 변신들도 당신들로 말미암았으니,  
나의 이야기에 영감을 불러 넣어주시고, 우주의 태초에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관통하는 영원한 노래의 선율을 울려주소서!  
(제1권 1-4행)

그가 서 있는 위치는 태초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오비디우스가 “노래하다(*canere*)”가 아닌 “말하다(*dicere*)”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말하다”는 “이야기하다(*narrare*)”이다. 오비디우스의 이름이 Naso<sup>25)</sup>라는 점만 언급하고자 한다. “이야기하다”를 주목하는 이유는, 오비디우스의 이야기 구성 방식이 “세이렌”

25) 라틴어 *narrare*는 그냥 말하기가 아니라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을 뜻하고, 오비디우스의 이름은 Naso는 “큰 코”를 뜻하지만, *narrare* 동사의 말장난을 통해서 나온 이름으로 보인다.

여신의 “이야기” 전통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어찌되었든, “세이렌(그리스어: *Seiren*, 혹은 라틴어: *Siren*)” 이란 단어의 어원만 가지고 본다면, 그것은 그리스 말 *eiro*와 관련이 있고, 라틴어 *sermo*와 연관이 있다. 또한 *verbum*과도 연관이 있다. 그런데, 이 단어는 *sero*라는 동사 혹은 실을 뜻하는 *series*와도 관련 있는데, 전자는 한편으로 “옷감을 짜다” 다른 한편으로 “이야기를 엮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느 의미가 선행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옷을 짜는 것과 이야기를 엮는 것은 서로 연관성이 깊다. 그런데, 오비디우스의 『변신이야기』에는 옷감 짜는 이야기가 많이 있다는 점이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변신이야기』 제6권 412행-721행에서 소개되는 프로크네와 필로멜라의 복수 이야기가 대표적인 한 사례일 것이다. 물론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지만, 『변신이야기』의 이야기를 엮는 방식이 실은 옷감 짜는 방식과 구조적으로 유사하고, 어쩌면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오비디우스만의 고유한 종류의 “이야기하는 방식(narrative)”이 생성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종류의 이야기 엮는 방식이 실은 세이렌 전통과 연관이 깊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점은, 카토가 “라틴어로 말하는 세이렌”이라는 언급이고, 그가 지은 작품, “딕튀나”가 “그물에 걸린 요정”이라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라틴어로 이야기하는 세이렌의 전통도 로마에서는 중요한 문학 장르 가운데에 하나일 텐데, 그러니까 휘기누스의 『이야기 모음』을 하나의 그물망으로 엮는 오비디우스의 이야기 구성 방식이 “세이렌” 이야기의 전통과 연관이 깊음을 보여주는 한 사례일 것이다.

## V. 나가는 말

『변신이야기』에는 그리스의 무사 여신, 로마의 카메나, 연애시의 세이렌의 특징이 모두 나타난다. 그는 카토와 에피로타로부터 세이렌 여신의 자유분방함을 배웠을 것이다. 안드로니쿠스에게서는 로마의 카메나 여신이 전하는 메시지를

가슴 깊게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변신이야기』는 엔니우스가 라틴어를 위해서 개척해 놓은 그리스의 육각음보로 부르는 노래라는 점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여러 전통의 영향 때문인지, 어느 순간 노래를 부르는 목소리의 주인이 카메나에서 세이렌으로, 세이렌에서 무사로, 무사에서 카메나 여신으로 바뀌는 작품이 『변신이야기』이다.

『변신이야기』는 한편으로 서사시다. 그리스의 운율을 사용하고, 로마 카메나의 전통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변신이야기』는 서사시가 아니다. 적어도 『일리아스』나 『아이네이스』와 같은 단일 주제를 가지고 조직된 노래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서정시도 아니다.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기에. 그러나 분위기와 시풍은 서정시에 가깝다. 어떤 경우는 비극에, 어떤 경우는 희극에 가깝다. 그렇다면, 이 작품의 장르를 어떻게 규정해야 할까? 한마디로 카멜레온이다. 하지만, 한마디만 더 붙이자면, 이런 융합 현상이 실은 로마의 작가 오비디우스의 머리와 가슴에서 펼쳐지는 “모방과 경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증거라 하겠다. 결론적으로, 로마 문학이 그리스 문학에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 데에는 문법학자들이 아주 큰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하겠다. 요컨대 카토, 에피로타, 폼필리우스와 같은 문법학자들의 선행 작업이 없었다면, 오비디우스와 같은 시인이 로마의 문단(*forum*)에 등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일차 문헌

- F. Glinister etalii, ed.(2007) *Verrius, Festus and Paul: Lexicography, Scholarship and Society*, in BICS(93), London.
- Ovidius(2004). R. J. Tarrant, ed. *Metamorphoses*, Oxford; 천병희 역(2006). 『원전으로 읽는 변신이야기』, 숲 출판사.
- Quintilianus(1970), M. Winterbottom, ed. *Institutio Oratoria*, Oxford.
- Suetonius(1995), R. Kaster, ed. *De Grammaticis et Rhetoribus*, Oxford.
- W. Morel, ed.(1927, 1963, 1982(K. Büchener)), *Fragmenta poetarum epicorum et lyricorum praeter Ennium et Lucilium*, Leipzig.

### 2. 이차 문헌

- 안재원(2011), 「오비디우스의 『변신이야기』의 형성 과정에 대한 탐구: “파에톤 이야기”를 중심으로」, 『서양고전학연구』 제42권.
- 허승일(1993), 「제1장 初期 로마: 歷史인가, 神話 또는 詩인가?」, 『로마사입문』, 서울대학교 출판부.
- Chandler, C.(2005), “Introduction” (1. The Epicureans and Paideia), in *Philodemos On Rhetoric Book 1 and 2*, New York: Routledge.
- Condos, Th.(1997), *Star Myths of the Greeks and Romans: A Sourcebook*, Michigan.
- Conte, G. B.(1999), *Latin Literature: A History*, trans. by J. B. Solodow, Baltimore/London.
- Doherty, L. E.(1995), “Siren Songs: gender, audiences, and narrators in the *Odyssey*”, B. Cohen, ed. *The Distaff Side: representing the female in Homer's Odyssey*.
- Encyclopaedia Britannica*(1911), Cambridge, “Hyginus.”
- Graf, Fr.(2002), “Myth in Ovid”, in *Ovid*, Cambridge.
- Leclercq, J.(1987). *La Sirène dans la pensée et dans l'art chrétiens (2e-12e siècles): antécédents culturels et réalités nouvelles* (2 vols.), Université libre de Bruxelles.

- Leeman, A. D., H. Pinster, and H. L. W. Nelson(1985), *De Oratore Libri I-II (Kommentar)*, Heidelberg.
- Lyne, R. O. A. M.(1978), “The Neoteric Poets”, *Classical Quarterly* Vol. 28.
- Meißner, B.(1992), *Historiker zwischen Polis und Königshof, Studien zur Stellung der Geschichtsschreiber in der Griechischen Gesellschaft in spätklassischer und frühhellenistischer Zeit (Hypomnemata 99)*, Göttingen.
- Nugent, S. G.(1990), “Tristia 2: Ovid and Augustus”, in *Between Republic and Empire*, K. A. Raaflaub and M. Toher, ed. Berkley.
- Raaflaub, K. A.(1986), “The Conflict of the Orders in Archaic Rome: A comprehensive and Comparative Approach”, K. A. Raaflaub, ed. *Social Struggle in Archaic Rome*, California.
- Rachewiltz, S. de(1987), *De Sirenibus, An Inquiry into Sirens from Homer to Shakespeare*.
- Reiff, A.(1959), *interpretatio, imitatio, aemulatio. Begriff und Vorstellung literarischer Abhängigkeit bei den Römern*, Diss. (Köln), Würzburg.
- Rose, H. J.(1958), “Second Thoughts on Hyginus”, in *Mnemosyne* (11.1).
- S. Döpp(1992), *Werke Ovids*, München: dtv Wissenschaft.
- \_\_\_\_\_ (2001), *Aemulatio: Literarischer Wettstreit mit den Griechen inZ eugnissen des ersten bis fünften Jahrhunderts*, Göttingen.
- Toher, M.(1990). “Augustus and the Evolution of Roman Historiography”, K. A. Raaflaub and M. Toher, eds. *Between Republic and Empire*, Berkley.
- Wiseman, T. P. 1974, *Cinna the Poet and Other Essays*, Leicester.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Greece and Rome is usually described by the terms *imitatio et aemulatio*. Rome was really keen to imitate Greece. However, Romans could not satisfy with the imitation of Greece. The conquered began to emulate the conqueror . In the end of the 1st century AD, there existed some Romans claim that Rome has overcome Greece completely. One of them may be Quintilian, because he declares that “Homer in Greece, but Vergil in Rome” (*Inst. Orat.*, 10.1. 85). Of course, his claim is disputable. However, it is evident that Quintilian’s claim is tolerable in the sense that the Latin is no more a poor language (*egestas linguae!*, Lucretius *De Rerum Natura*, 1. 52) in his time. For this, the most important contributors are authors like Cicero, Vergil and Horace. With this, it is worthy also to see various endeavors of so called small contributors, named Grammarians who seem to have exercised some large influences over Roman authors. In this regard, there is no doubt about the fact that Ovid is a *poeta doctus*. In this paper, thus, I have concentrated on arguing of some grammarians who have exercised some influence over Ovid’s poetry, as a case study for answering to the question of how the conquered defeated the victor.

[Keywords]

Ovid, Grammarians, imitation, emulation, *Metamorphoses*.

논문 투고일: 2011. 02. 08

심사 완료일: 2011. 04. 11

게재 확정일: 2011. 04. 13